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6. 6. 7.(일) 0시 이후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과학영농팀장	강성민	☎ 760-754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폭염 속 농업인 지킨다·농업기술원 온열질환 예방 총력

- 온열질환 예방요원 30명 위촉...오는 9월까지 현장 방문 활동 전개 -
- 폭염 5대 안전수칙 온·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오는 9월까지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.

○ 최근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폭염 시작 시기가 빨라지면서 야외활동 비중이 높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.

* '25년 폭염일수(제주): 79.8일(평균 대비 87.7%↑),

** '25년 열대야일수(제주): 63일(평균 대비 50.7%↑)

○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통계(농촌진흥청)에 따르면 최근 3년간(2023~2025) 전체 온열질환자의 67.6%가 60~90세에 집중됐으며, 추정 사망자의 72.2%는 7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따라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.

□ 이에 농업기술원은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을 위해 ‘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지난 5월 여성농업인단체와 연계해 온열질환 예방요원 30명을 위촉하고, △온열질환 예방수칙 △폭염 대응 요령 △응급

처치 실습 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.

- 교육을 이수한 예방요원들은 오는 9월까지 2인 1조로 농작업 현장을 방문해 △온열질환 안전수칙 안내 △체감온도 확인 방법 교육 △응급상황 대처요령 안내 △예방용품 보급 등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‘농업인 안전365 캠페인’ 과 연계해 폭염 5대 안전수칙에 대한 온·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.

- 폭염 5대 안전수칙은 △충분한 수분 섭취 △시원한 그늘에서의 휴식 △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△개인 보냉장구 착용 △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다.

- 농업기술원은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한 안전메시지 송출, 농업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실천 캠페인 전개,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 및 폭염알림배지 배부 등 현장 중심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이와 함께 안전문자 발송, 지역방송 연계 캠페인 영상 송출, 온열질환 예방 웹드라마 제작·배포 등 온라인·미디어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.

□ 강성민 과학영농팀장은 “폭염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재난인 만큼 기본 안전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 며 “앞으로도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